

박지성 다시 날다

위건전서 페널티킥 유도 '승리 견인' 토트넘 이영표와 함께 '평점 7' 받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박지성(25)이 2경기 연속 선발 출전해 페널티킥을 유도해 내며 풀타임으로 맹활약했고 맨유는 2연승으로 선두 독주 체제를 굳혔다.

박지성은 27일 오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포드 구장에서 열린 2006~2007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위건 어슬레틱과 홈경기에서 왼쪽 날개로 선발 출전해 후반 5분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등 전·후반 90분 동안 그라운드를 질주했다.

지난 9월 왼쪽 발목 인대를 다쳐 100여일간 수술과 재활 훈련을 받았던 박지성은 24일 아스톤 빌라와 원정에 이어 2경기 연속 선발로 출전해 위협적인 슈팅과 크로스를 여러차례 날리며 부상을 완전히 털어버린 모습을 선보였다.

특히 박지성은 후반 5분 페널티킥을 유도해내는 재치 넘치는 플레이로 경기 감각도 최상에 이르렀음을 보여줬다.

맨유는 후반 시작과 함께 대런 플래처 대신 교체 투입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선제 결승골에 추가골을 터트린 데다 올레 군나르 솔샤르의 썩어골까지 묶어 종료 직전 페널티킥으로 1골을 만회한 위건을 3-1로 완파했다.

맨유는 16승2무2패 승점 50으로 레딩과

비긴 2위 첼시를 승점 4점 차로 따돌리고 리그 선두를 질주했다.

'조룡이' 이영표(토트넘 핫스퍼)의 얼굴도 모처럼 환하게 빛났다.

이영표는 이날 토트넘의 홈구장 화이트 하트레인에서 열린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왼쪽 측면수비수로 출장, 풀타임을 소화하며 활발한 공격 가담과 안정적인 수비로 팀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한편 박지성(25)과 토트넘의 이영표(29)는 이날 비교적 높은 점수인 평점 7점을 나란히 받았다.

영국 스포츠전문매체 '스카이스포츠'는 이날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장한 박지성에게 '바쁘게 움직였다(busy)'라는 평점 7점을 매겼다.

또 박지성과 같은날 선발 출격한 이영표에게도 평점 7점이 주어졌다.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 선발로 출전, 90분을 뛰며 활발하게 움직인 이영표는 여러 차례 날카로운 크로스를 선보이면서 '위험적인 크로스(Dangerous crosses)'란 평가를 받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돌아온 습격자' 박지성

부상 탈출... 완벽한 적응

'7분-65분-90분'

부상으로 100여일간 그라운드를 떠나 있었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박지성(25)이 27일(이하 한국시간) 위건 어슬레틱전에서 복귀 3경기 만에 예전 감각을 완전히 되찾았다.

박지성은 2006~2007 시즌 초반인 9월10일 토트넘전에서 왼쪽 발목 인대가 찢어지는 바람에 수술을 받은 뒤 재활을 거쳐 지난 18일 웨스트햄전에서 후반 42분 교체 투입돼 7분여를 뛰며 99일만에 공식 복귀전을 치렀다.

박지성에게 7분은 평가를 보여주기에 너무 짧았고 6일을 쉬 박지성은 24일 아스톤 빌라와 원정에서 4개월여만에 선발로 출격해 65분을 뛰었다.

이번에도 적응이 끝나지 않은 듯했다. 바쁘게 뛰어다니기는 했지만 이렇다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 영국 스포츠전문매체 '스카이스포츠'도 박지성에게 "최상이 아니었다"며 비교적 낮은 평점 5점을 매겼다.

하지만 세번째 복귀 경기였던 위건전에서 박지성은 예전의 '산소탱크'이자 '습격자'로 돌아왔다.

왼쪽 날개로 선발 출격한 박지성은 90분 풀타임을 뛰며 지치지 않는 체력을 선보였다. 경기 초반에는 직접 위협적인 슈팅을 날리며 맨유 공격의 포문을 열었고, 후반 5분

■ 박지성 복귀 3경기

- 18일 웨스트햄전 7분
- 24일 아스톤전 65분 평점5
- 27일 위건전 90분 평점7

에 상대 수비로부터 페널티킥을 유도한 것은 장기간 '영리한 축구'가 빛을 발한 장면이었다.

박지성이 이날 보여준 플레이는 100일간 그라운드를 떠나있다 고작 2경기에서 70여분을 뛰며 실전 감각을 조율했다고 하기에 놀랄 만한 속도의 적응력이었다.

특히 맨유는 박지성의 빠르고 완벽한 적응이 절실했다.

2위 첼시에 바짝 쫓기며 불안한 선두 자리를 유지하던 맨유는 투니부터 루이 사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라이언 그스, 게리 네빌, 리오 퍼디난드 등 주전들이 그동안 이어진 강행군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어 휴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날 경기에서 이들 6명 가운데 투니만 선발로 나왔을 뿐 나머지는 벤치를 지켰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왼쪽)이 27일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포드 구장에서 열린 2006~2007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경기에서 위건 어슬레틱의 피츠 출과 공을 다루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실업축구 내년부터 세미프로리그 운영”

국내 여자 실업축구가 내년에는 세미프로리그로 전환돼 대중화에 나선다.

한국여자축구연맹은 27일 “내년부터 현대제철과 대교 캣거루스, 서울시청, 충남 일화 등 국내 실업 여자축구 4개 팀이 정규리그와 컵대회를 치르는 세미프로리그를 출범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자축구연맹 계획에 따르면 정규리그는 4차 또는 5차 리그까지 치러 팀 당 12~15경기를 하고, 7월에 열리는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와 10월 전국체전, 11월 말 FA컵까지 컵대회 3개를 더 치러 팀 당 평균 25경기 정도를 소화하게 할 예정이다.

현대제철·대교 등 4개팀 팀 당 평균 25경기 소화

프로 성격을 띠기 위해 외국인 선수 영입으로 경기의 박진감을 높일 계획이지만 아직 정부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다.

여기에 내년 1월 창단 예정인 국군체육부대가 하반기부터 컵대회 등에 참가하게 되면 2008년부터는 5개 팀이 참여하는 정상적인 프로 리그가 정착되는 동시에 신생팀 창단도 가속화될 것으로 여자축

구연맹은 전망했다.

이에 따라 연맹은 내년 초 실업 4개 팀 단장이 참석하는 ‘여자축구 세미프로리그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리그 일정과 대회 진행 방식, 상금 규모 등을 정할 계획이다.

유영운 연맹 사무국장은 “올해부터 실업리그를 출범하려 계획했지만 4월부터 20세 이하 아시아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피스퀀컵과 아시아게임까지 각급 대표팀 대회가 많이 열리는 바람에 리그 운영이 불가능했다”며 “내년에는 굵직한 대회가 없는 만큼 리그를 반드시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G 3관왕’ 박태환 포상금 8천475만원 양궁선수단 12명에 4억8천만원

2006 도하아시안게임 수영 3관왕 및 최우수선수(MVP)에 빛나는 ‘마린보이’ 박태환(17·경기고·사진)이 8천475만원의 포상금 및 격려금을 지급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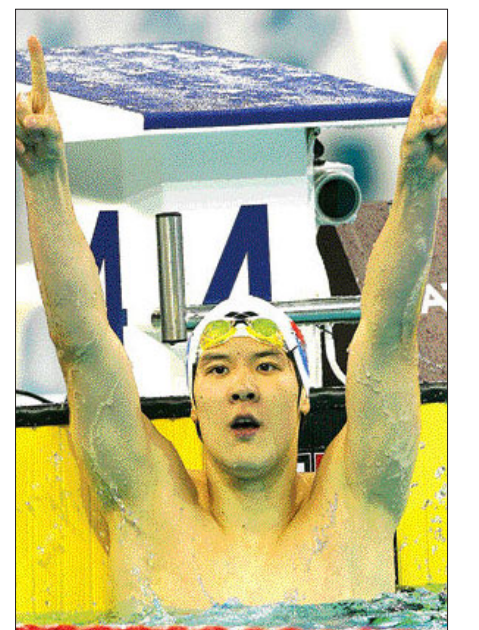
또 아시안게임 남녀 개인 및 단체전 4개 종목 석권한 양궁선수단 12명에게는 총 4억8천4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대한수영연맹은 27일 오후 ‘2006 한국수영 국가대표 선수단 도하아시안게임 및 국제수영대회 입상, 신기록 수립 포상식’을 갖고 국가대표 선수 21명 및 코칭스태프 8명에게 총 1억5천125만원의 포상금을 전달했다.

최대 포상금 수혜자인 박태환은 아시안게임 성적으로 5천875만원에 범태평양대회로 2천200만원, 지난해부터 작성한 한국신기록으로 400만원 등을 합쳐 모두 8천475만원을 받았다.

대한양궁협회도 이날 열린 ‘2006 양궁인의 밤’ 행사에서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나란히 2관왕을 차지한 임동현(한국체대)과 박성현(전북도청)에게 각각 5천만원씩, 여자 개인전 금메달과 단체전 은메달을 목에 건 윤옥희(예천군청)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고, 여자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윤미진(수원시청)과 이특영(광주체고), 남자 단체전 금메달의 주역인 장용호(예천군청), 박경도(계양구청), 이창환(상무)에게는 각각 2천만원을 지급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테니스 황제’ 페더러 2년연속 올해의 선수 美 스포츠아카데미 선정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세계랭킹1위·스위스)가 27일(한국시간) 발표된 미국스포츠아카데미(USSA) 선정 ‘올해의 최고 선수’를 2년 연속 수상했다.

지상파 방송인 MSNBC와 유일의 전국 신문 USA 투데일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지난 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투표에서 페더러는 남녀 스포츠 스타를 통틀어 팬들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획득, 이 상을 2년째 차지했다. 정확한 득표수는 발표되지 않았다.

페더러는 최고 권위의 윌버던을 4연패 하는 등 올해 4대 메이저대회 중 3개를 휩쓸었고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대회 포함 12차례나 우승컵을 들어 올려 ‘현존하는 최고 선수’라는 찬사를 받았다.

이미 국제테니스연맹(ITF)이 선정한 ‘올해의 선수’를 수상한 페더러는 러시아의 이타르 타스 통신이 뽑은 ‘올해 최고 선수’를 품에 안은 데 이어 USSA상까지 거머쥐며 세계 최고 스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8번이나 챔피언에 오른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와 US오픈 정상에 오르며 ‘4강 전문 선수’라는 꼬리표를 땀 ‘테니스 요정’ 마리아 샤라포바(러시아)가 각각 남녀 최고 선수에 뽑혔다.

릴리 ‘올해의 여자선수’ 미국프로축구연맹 선정

2006 피스퀀컵 국제여자축구대회 최우수선수(MVP)에 빛나는 미국 여자축구대표팀 주장 크리스틴 릴리(35·사진)가 미국축구연맹이 선정한 ‘올해의 여자선수’로 뽑혔다.

미국축구연맹은 27일(한국시간) 홈페이지(www.ussoccer.com)를 통해 릴리가 2년 연속이자 생애 3번째로 ‘올해의 여자선수’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릴리는 16세 때인 1987년 중국과 A매치 데뷔전을 치른 뒤 꾸준히 대표팀에서 활약하다 올 1월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4개국 친선축구대회 노르웨이와 경기에서 18년만에 전대미문의 A매치 300경기 출전의 대기록을 작성했다.